**마2434-1 Note**

**◆Cross check : 사3404, 벧후0310, 계0612**

사3404. 그리고 하늘의 모든 무리들이 용해되며, 또 하늘들이 두루말이와 같이 함께 감기느니라(말리느니라). 그리고 포도나무로부터 잎이 떨어지듯이 또 무화과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무화과와 같이 그들 모든 무리들이 아래로 떨어지느니라.

사6517. 보라, 이는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함이라.

그리고 전의 것은 기억되지도 않으며 또한 생각나지도 않느니라.

사6622. 여호와가 말하느니라, 이는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서 남아있듯이, 그렇게 네 씨와 네 이름이 남아있음이라.

Ω벧후0310.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니라,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(로이제돈: 윙 소리가 나는,깨지는 소리를 내는,큰 소리를 내는) 굉음과 함께 사라지며, 또 기초적인 것들(스토이케이온: 배열에서 순서적인 것, 연속적 구성,요소,원리,기초)이 뜨거운 열로써 녹으며, 또한 땅과, 그 안에 있는 수고(에르곤: 노역,행위, 수고,일)들이 태워지느니라(카타카이오: 태워 내리다,다 태워버리다, 타다).

Ω벧후0311. 그렇다면 이들의 모든 것들이 용해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,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며, 또 그 날에로 서두르면서(스퓨도: 속도를 내다, 열심히 하도록 재촉하다, 간절히 기다리다,서두르다), 온갖 거룩한 품행(아나스트로페:품행,처신,행위,대화)과 경외함(유쎄베이아: 경건, 복음의 개요,거룩)에서 너희가 마땅이 어떤 류(類)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?

벧후0312. 그날에는 불타고 있는 하늘들이 용해되며, 또 기초적인 것들(스토이케이온: 배열에서 순서적인 것, 연속적 구성,요소,원리,기초)이 맹렬한 열로써 녹느니라.

벧후0313. 그럼에도,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, 그 안에 '법적 깨끗함'이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(프로스도카오: 예기하다,기다리다,기대하다),

Ω계0612. 그리고 그분이 여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에 내가 바라보았느니라, 그리고 보라, 큰 지진이 있었느니라, 그리고 태양은 털로 만든(트리키노스:털이 많은,털로 만든,총담) 거친 베옷(싹코스:거친 베옷, 닳아빠진 베로 만든 물건이나 옷)와 같이 검게 되고, 달은 피와 같이 되었느니라.

계0613.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세력(힘)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때에, 그녀가 자기의 때이른 무화과들을 던지는(발로: 던지다,일어나다,눕다,눕히다,붓다,~위에 두다,보내다,파업하다,아래로 던지다,찌르다) 바로 그대로, 하늘의 별들이 땅에로 떨어졌느니라,

계0614. 그리고 하늘이 함께 말렸을 때에, 그것이 두루말이(비블리온:두루마리,지혜,책,서적)와 같이 떠나갔으며(아포코리조: 따로 나누다,분리하다,가르다,격리하다), 그리고 낱낱의 산과 섬은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졌느니라.

Ω고전1551. 보라, 내가 너희에게 한가지 신비(뮈스테리온: 비밀, 신비)를 보여주노니, 우리가 모두 잠 들지 않고, 대신에 마지막 나팔 때에, 순간에 곧 눈 깜짝할 사이에, 우리 모두가 변형되느니라(알랏쏘: 다르게 만들다,변경하다,변하다).

고전1552. 이는 나팔이 울리며, 또 죽은 자들이 썩지 않게 일으켜지며, 또 우리가 변형됨이라.